



박소현의 섹.시.토크

김대리는 오늘 아침, 쓰린 속을 부여잡고 집을 나섰다. 평소 같으면 아내가 끓여준 따뜻한 된장국에 밥 한술 말아먹은 뒤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도 받았겠지만, 오늘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운 아내가 깔까봐 찬물 한 그릇 못 따라 마시고 조심조심 집을 나서야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췌겨주는 것만은 잊지 않았던 아내가 기척 한번 내지 않고 누워있는 것은 모두 간밤에 일어난 난투극 때문이었다. 난투극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내였고 김대리는 아내를 말리느라 엉덩을 뿐이었다.

어젯밤, 아내는 평소엔 집착도 못한 괴력으로 김대리를 때리고 할렐루야며, 심지어 베개를 집어던져 결혼할 때 친구들이 사준 스탠드까지 박살내는 상황을 연출했다.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모두 어제 1차 회식이 끝나고 몰려간 2차 포장마차에서 최대리의 심겨운 소리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인 탓이었다. 평소에도 내용 없고 근거 없으며 영양가 없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 최대리는 어제도 예외가 아니었다.

“요즘은 잡자리가 어때? 여전히 재미가 좋냐?” 우리 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사람도 최대리뿐이었다. 다들 짐작은 예처가들이라 여자종업원이 나오는 술집조차 출입 않는 사

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엔 자기도 재미를 못 본다면 항상 불불거리더니, 어제는 그 한을 입으로 풀려는지 앉자마자 B급 음담패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나온 이야기가 김대리의 말초신경을 슬쩍 자극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는 거지. 가령 우리 와이프 이름을 미숙이라고 치



면, 마음속으로는 세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진짜 훨씬 더 흥분이 된다니까.”

“어휴, 수준 떨어져, 차라리 바람을 피워라.” 어제 포장마차에서의 분위기는 그랬다.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와 적당히 술도 한잔 했다가,

마침 아내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라 볼 끄고 작업에 들어가던 그 순간, 최대리의 그 말이 슬쩍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도 한번 해 봐?”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름 하나를 정했다. 처음에는 최대리가 말한 ‘세희’를 불렀다가 웬지 최대리가 아는 여자인 것 같아 다른 이름을 궁리하다 ‘애리’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마음속으로 다른 여자 이름을 불러봐 그럼 진짜 훨씬 더 흥분이 된다니까”

‘애리’는 총각 때 즐겨보던 예로비디오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정말 끝내주는 몸매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이 떠오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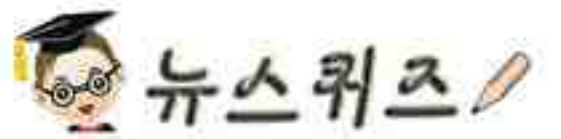
적당히 오른 술이 김대리에게 다소 무모한 용기를 안겨주었다. 멀쩡히 아내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머릿속으로는 계속 예리를 부르고 있으니,

죄책감인지 흥분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김대리를 자극하기 시작하는 것도 같았다. 그런데 그 순간 그만 오버를 해 버린 것이 결정적 실수였다. 절정의 순간이 오자 자신이 모르게 “애리아!” 하고 외치고 만 것이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아내의 발길질에 의해 침대 밑으로 나가떨어진 뒤였다. 잠귀마저도 유난히 밝은 아내가 아무리 흥분상태였다 해도 자신의 이름과 남편의 이름을 구분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 이어진 폭력행사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살아서 아침을 맞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연애 6년, 결혼 4년, 십년을 한 사람하고만 상대하면서 속으로만 생각 한번 안 했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 것보다 더 기분나쁘다는 아내의 말을 떠올리니 새삼 자신의 썸셈이 행각에 비등할까지 느껴진다. 그야말로 알뜰한 흥분을 맛보려다 망신살만 뻔하게 된 셈이었다.

어느 덧 회사 앞, 저만치 최대리가 걸어가고 있다. 담장 달려가서 헤드라이라도 걸어버릴까 싶다가 이게 다 내 못난 탓이지 싶어 굳게 쥐었던 주먹을 푼다. 그저 빈속만 쓰릴 뿐이다. <연애 칼럼리스트>



66. 최고 수준의 대항(對抗)·대공(對空)·대잠(對潛) 능력을 갖춘 '꿈의 구축함'으로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KDX-III·7천600t급) 1번 함의 진수식이 최근 열렸습니다. 이 구축함이 진수됨에 따라 우리 나라는 미국·일본·스페인·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 이지스 구축함 보유국이 됐습니다. 시험운행을 거쳐 2008년 해군에 실전 배치될 이지스 구축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 세종대왕함 ② 서해함 ③ 남해함 ④ 제주도함

참여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일(음 4월 16일 丙寅)

36년생 새로운 곳에 행성이나 재미는 있다. 48년생 집사가 적으니 조심하여 추진하는 것이 상책이다. 60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 결과 좋은 흉을 수다. 72년생 승부수를 띄워보라 결과는 이기는 쪽이다. 84년생 자기 일을 뒤 돌아보면 허술함이 보이니 보완하고 남으라. 행운의 숫자 : 05, 26

37년생 서로 다투며 나가기 좋을 수는 없다. 49년생 대고는 없다. 61년생 희망적 설계는 있으나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73년생 속으로는 통한 듯하지만 오해의 불씨가 움틀 수 있다. 85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고 우선 만족에 들뜨지 마라. 행운의 숫자 : 01, 35

38년생 큰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실망할 수도 있다. 50년생 신용을 지키지 않으면 실속 있는 사람도 되는 일이 없으리라. 62년생 옛 인연을 지속하라. 74년생 신뜻한 새 맛으로 잠깐의 즐거움을 있다. 행운의 숫자 : 18, 32

39년생 새로운 일이 있을 수 있고 협력자가 나타난다. 51년생 속전 속결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큰 이익이 생긴다. 63년생 가정이 안정된다. 75년생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면 가능성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4, 38

40년생 말만 한 일은 있으나 성사는 어려우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52년생 계획했던 좋은 일 이루어지리라. 64년생 집안이 위승승하나 침착하면 정리된다. 76년생 자신의 입으로 구설수가 생길 수니 말을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17, 29

41년생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보이니 배물론 돌아온다. 53년생 모든 의원을 풀고 싶리라 바래라. 65년생 과욕을 버리고 친구 간의 동업은 불씨가 될 수도 있다. 77년생 독신은 밖으로 나가라. 즐거운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03, 45

42년생 정리를 잘하면 득은 저절로 생긴다. 54년생 모든 일이 난조로 신중하게 내실을 기하라. 66년생 시기가 빠르니 자기 사람으로 주변을 구축하라. 78년생 기회가 좋은 일로 연결되니 철저하게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 09, 36

43년생 제사를 새롭게 점검 할 필요가 있다. 55년생 새로운 기회는 갖는 것이나 분수를 지켜라. 67년생 매사에 신중하고 규모를 축소하라. 79년생 만족한 결과가 있으니 설계에 다시 한번 신사가 새롭다. 행운의 숫자 : 07, 40

44년생 절기의 마무리는 큰 재물을 얻으니 글을 조심하라. 56년생 불로소득을 바라지 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 68년생 의무를 앞서나 안급을 조절해야 하리라. 80년생 인연은 좋은 결과가 된다. 행운의 숫자 : 21, 25

45년생 좋은 정보는 들려오나 서둘러는 말라. 57년생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진행하면 크게 성공하리라. 69년생 숨은 돌리고 주변을 둘러보라. 81년생 時機을 준비를 잘하라. 행운의 숫자 : 11, 34

46년생 앞으로 불행사가 예상이나凶事는 없다. 58년생 실물수가 있으니 물건을 조심하라. 70년생 시기는 빠르니 승풍은 터졌다. 82년생 옛 친구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협조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12, 30

47년생 좋은 날이지만 주변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59년생 부친의 건강도 살펴보고 인사를 올려라. 71년생 주변 이웃을 잘 살펴서 가야 한다. 83년생 득도 있고 실도 있으며 시비를 가리는 송사가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08, 37

www.cafe.daum.net/sajoo114 ☎111-632-6121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with a photo of a family and contact information.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한국 여성의 국제 대회 패자가 인터넷을 달군 한 주였다.

전도연이 제 60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획득하고 이하늬가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2007년 미스유니버스 선발대회에서 톱 5안에 들면서 4위 입상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 검색어 순위가 올랐다. 특히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 동영상과 사진은 이곳저곳으로 퍼날라지면서 인기를 끌었다. 중국 광서TV 주최 제 2회 아시아 슈퍼 모델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임지애(19·대덕대 모델학과 2년)도 화제를 모았다.

임지애, 아시아 슈퍼 모델 1위 화제

국내 분류를 겪고 있는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교장을 가두고 밀가루를 뿌렸다는 내용이 알려진 뒤 한 때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었다.

또 지난 2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재구(37)씨도 관심을 모았다. 여씨는 사건재연드라마에 출연한다고 해서 불어진 이른바 '재연배우'로, 인터넷에서는 고인이 출연한 드라마가 동영상으로 올라오거나 하면 여씨의 죽음을 예도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잇따랐다.

제품 모양이 원피스 스타일의 미니스커트와 비

슷해서 불어진 삼성전자의 미니스커트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10.9mm 두께의 슬림 슬라이드 스타일에 외부의 나사, 홈 부분을 모두 없애 깔끔한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특징.

개그맨 정중철이 자신의 미니 흥피를 통해 공개한 다음달 출산 예정인 부인 황규림씨의 탄산 사진, KBS 개그 콘서트에 출연중인 윤형빈, 정경미 커플의 열애, 배우 김하늘이 '대부업체' 광고의 계약 일부를 물어주고 이 광고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는 소식 등도 화제가 됐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최근 자신이 모델로 나선 '대부업체'의 광고 계약금 일부를 물어주고 광고 출연을 중단한 김하늘.

Go board game diagram for '광주 전남 직장바둑대회' (Gwangju Jeonnam Office Go Tournament) with a '참고도' (reference board) and commentary.

Go board game analysis for '대성공한 무리수' (Greatly successful group move) by Lee Han-jae, including a '참고도' and commentary.

Baduk (Go) news section titled '바둑소식' (Baduk News) featuring a match between Kang Dong-yun and Wang Jung-won.

굿모닝 잉글리쉬 <917> 오하요우 니혼고 <917> 니하오 쥬구워 <108> 한자 이야기 <534>

English lesson 'Where is the public telephone?' with multiple choice options and a short dialogue.

Japanese lesson '感動的な話(はなし)ですね' (It's a touching story, isn't it?) with a dialogue and vocabulary.

Weather forecast lesson '天气预报 일기예보' with a dialogue about the weekend weather.

Chinese lesson '百折不屈(백절불굴)' (Unyielding despite a hundred setbacks) with a story and a short dialogue.